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AI 기반 축산 미래모델 구축 탄력

전북자치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9조3000억원 투자 유치·헴프·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성장동력 확보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차전지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며, 헴프와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

3일 도에 따르면, 신산업 육성 전략의 핵심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다.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은 245만 평 규모로, 광물가공과 리사이클링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투자 유치 실적도 두드러진다. LS-L&F 1조 5000억 원, 퓨처그라프 4,400억 원 등 총 9조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다. 천보비엘에스, 테이팩스, 에스이머티리얼즈, 성일하이텍이 가동 중이며, 지난 9월에는 LS-L&F 배터리 솔루션 공장 준공식이 열렸다.

도는 특화단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제도·연구·인력양성 등 3개 분야를 운영하고, 충북·경북·울산과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291억 원

규모의 R&D 사업으로 핵심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비R&D 사업으로는 전후방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국립군산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연간 100여 명을, '배터리 아카데미'는 70여 명의 실무 인재를 배출한다. 389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국가신단 2공구에 실시간 고도분석센터를 조성 중이며, 84억 원 규모의 디지털트윈 기반 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센터도 추진 중이다. 505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결성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전북의 또 다른 성과는 퍼지컬AI 분야다. 가상공간의 AI 알고리즘을 실제 물리 환경에 적용하는 퍼지컬AI는 차세대 제조업 핵심 기술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북은 상용차·농기계·특장차 등 다종종 소량생산 체제와 도심 내 11만 평 부지 확보로 AI 기반 스마트 제조의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강점을 인정받아 전북은 정

동영 의원 등 정치권 협업으로 389억 원 규모의 퍼지컬AI P&C(개념증명) 시범사업을 확보했다. 현대차, 네이버, 리벨리온 등 기업과 전북대, 카이스트, 성균관대 등 도내의 대학이 참여하며 산학협력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올해 8월에는 1조 원 규모의 본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확정되며 퍼지컬AI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퍼지컬AI TF 전담팀'을 구성하고, 글로벌 협업 클러스터와 개방형 연구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는 헴프와 방위산업이 떠오른다. 미국·캐나다·EU 등 주요국의 대마 규제 완화에 발맞춰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헴프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생산 여건과 농생명 연구기관 집적 이점을 살려 수출부터 조제·가공·유통까지 전주기 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용역을 거쳐 올해 9월, 국경과제에도 반영된 새

만금 글로벌 메가센트박스(메가특구) 1호 산업으로 헴프산업클러스터를 제안했다. 경북도와 공동 포럼을 열어 협력을 강화하고, 헴프산업특진 특별법 제정도 추진해 내년 상반기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한다.

방위산업 클러스터도 가속화된다. AI·드론·국방우주 등 첨단 방위산업을 육성해 K-방산 글로벌 4강 도약에 동참한다는 전략이다.

새만금의 지리적 이점과 극한환경 소재 R&D 역량을 바탕으로 안티드론 실증센터 등 테스트베드를 구축 중이다. 2026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은 목표로 첨단소재 분야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차전지와 퍼지컬AI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헴프와 방위산업까지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것"이라며 "전북이 대한민국 신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날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지역 맞춤형 스마트축산 패키지 공모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2026년 지역 맞춤형 스마트축산 패키지 공모사업'에서 정읍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정읍 지역 양돈농가 13곳을 대상으로 총 34억 2,100만 원 규모의 스마트축산 패키지 구축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사업비는 국비(기금) 10억 2,600만 원, 용자 17억 1,000만 원, 농가 자부담 6억 8,400만 원 이다. 전북도는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자동화 장비와 지능형 운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스마트 패키지는 환경관리기, 냉방기, 롤링패드, 모돈급이기 등 필수 하드웨어(HW)와 축사 운영을 통합 관리

하는 소프트웨어(SW)를 함께 구축하는 방식이다. 온도·습도·사료 급여량·에너지 사용량 등 주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최적의 사양 환경을 자동으로 조성한다.

이번 정읍시의 공모선정은 전북도가 정읍시, 지역 농가, ICT업체와의 4자 협력체계를 긴밀히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협업해온 결과로, 농장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장비 보급을 넘어 환경·사양·에너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네이더 기반 스마트축산 체계'를 구축해 전국 확산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첫 분양' 흥행 성공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차 분양결과, 근린생활시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분양에서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와 단독주택용지 45필지가 낙찰되며 성공적인 분양을 마쳤다.

이러한 결과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주

거용지 첫 분양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며,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최고 31: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요한 입찰자가 없는 일부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는 1차 공고 당첨자의 계약 진행상황에 따라 12월 10일부터 재공고나 진행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도, 정부혁신 박람회서 '금융 중심지' 성과 공유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 충청북도 청주 오소요에서 5일까지 열리는 '2025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가해 "전국 최초, 핀테크육성지구 지정으로 디지털 혁신 금융을 주도한다"는 주제로 전북의 혁신 성과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중앙부처 26개 기관과 지방정부 20개, 공공기관 43개, 민간기관 68개 등 총 15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대한민국 정부혁신의 방향성과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박람회는 'AI X 정부혁신 = 국민행복'을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AI 민주정부 전략을 제시하며 다양한 혁신 사례와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도는 박람회에서 전북이 전국 최초로 지정받은 '핀테크육성지구'를 중심으로 데이터·AI·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 금융혁신 전략과 정책 성과를 홍보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환경청, 수도사업자 운영·관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북지방환경청은 도내 15개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 결과, 전주시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임실군, 정읍시, 군산시가 우수 등급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구 규모에 따라 6개 그룹으로 구분해 진행되었으며, 수도

시설 운영 인력의 전문성, 정수장 및 배관망 유지관리 실태, 누수를 개선 노력 등 총 31개 항목을 종합 평가했다.

특히 전주시는 상수도 사고 대응 능력과 수돗물 품질 관리, 배수지 수질 감시를 등에서 성과를 보였고, 노후 상수관 교체를 통한 유수율 향상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오상근 기자

자원봉사로 하나 되어 모두가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 격려·표창 수여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는 3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5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UN이 정한 '세계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을 기념하여 자원봉사자의 가치를 되새기고, 한 해 동안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대회에는 시·군 자원봉사센터 수상자와 가족,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김관영 도지사,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은, 도의원 등 주요 내빈이 자리해 자원봉사자들의 공헌을 함께 축하했다.

한 해 동안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김관영 도지사의 격려사와 자원봉사자 유공자 포상이 진행되었으며, 호원대학교 항공관광전공 및 무지컬전공 대학생의 의전봉사와 갈라쇼 공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노래패가 특별 축하공연을 선보이며 현장



2025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을 더욱 뜨겁게 달궜다.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자 무대에서 해바라기의 명곡 '사랑으로'를 기타 연주와 함께 감미롭게 노래를 선사해 행사장의 분위기를 한층 아름답게 밝히며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전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자원봉사왕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표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표창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표창

등 총 5개 부문에서 자원봉사 유공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전북센터 이사장의 감사패 수여도 진행되며, 헌신적으로 활동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2011년부터 시행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왕은 연간 봉사활동시간이 가장 많은 개인부문(익산시 김영한 2,241시간), 단체 시부문(김제시 자율방범연합대 61,950시간), 단체 군부문(순창 북흥면자율방

범대 3,720시간), 가족부문(남원 김상태 가족 450시간 40분) 선발하여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실천이 전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